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09	08. 16	08. 23
대 표 기 도	장래황 형제	이예준 형제	윤미경 자매
성 경 봉 독	장래황 형제	이예준 형제	윤미경 자매

교회소식

8월 축복 인사 :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는 8월 되세요!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짐바브웨 선교 동참 - 아브라함교회의 선교지에 700유로 후원했습니다.
4.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하십시오.
5. 나눴의 시간 - 예배 후 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황희순 집사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7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입례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Gemeindelied	-----	다같이
기 도 Gebet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나 3 : 14 - 17(구p1301) (Nahum 3:14~17)	정해욱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무너지는 세상 영원한 십자가	이상호 목사
성찬예식 Abendmahl	살아계신 주, 눅22:19~20	담임목사
*파송찬양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학, 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무너지는 세상, 영원한 십자가

나훔서는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경제력, 화려한 문화를 가진 세계 최강의 도시였기에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몬의 멸망을 통해 인간이 의지하는 힘과 제국은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I 하나님 없이 세워진 제국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노아몬은 나일강과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가진 안전한 도시였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니느웨를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인간의 권력과 체제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II 니느웨의 심판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니느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에 있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참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III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훔 3장은 우리에게 무너질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세운 제국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2. 나는 지금 가장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